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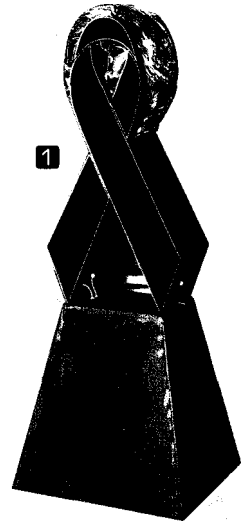
## 제15회 세계에이즈의 날 성황리에 마쳐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에이즈의날종합행사조직위원회(위원장 김모임)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자 11월 29일(금)부터 11월 30일(토)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하였다.

감염자의 일상을 카메라 앵글로 담은 positive lives사진전을 개최하여 감염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심포지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적 차별과 편견의 해소방안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위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두타에서 힙합댄스, 락밴드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뮤직페스티벌을 실시하여 젊은이들이 에이즈에 대해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감염자에 대한 원기회 제공을 돕기 위해 산본지원 개최
- >> 감염자와의 만남(11월 15일, AIDS 사진전)
- >> 젊은이들의 관심유도를 위한 두타 행사(상차 다양한 이벤트 행사)



-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상징인 '레드리본'을 형상화한 작품.
- 붉은 천으로 두타 무대를 가득 매워 '레드리본'을 형상화.
- 제 15회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대회를 하고 있는 김모임 본회 회장.
- 레드리본 점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
- 11월 30일 두타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운 고려대 힙합그룹 UDF.
- 시청역 지하보도에서 전시되었던 감염인 사진전을 흥미있게 지켜보는 청소년들.

